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 이름 | 김 * 관 |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밴쿠버 |
| 파견대학 | 랑가라컬리지 | 파견기간 | 2015. 9. – 2015. 12. |
| 귀국여부 | 예 | |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파견대학랑가라컬리지는 밴쿠버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다운타운에서 스카이트레인(전철)로 20-30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많은 컬리지 중에서 규모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하며 캠퍼스가 있는 컬리지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캠퍼스 내 수업을 위한 건물이 2개-3개 동이 있으며 랑가라컬리지 라이브러리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LEAP프로그램의 경우 학생의 85% 이상이 중국인 학생들이며 일본인,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은 캐나다 내에서 컬리지 및 대학교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아카데미 영어 공부를 위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학구열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선생님들 또한 수업진행에 열성을 다하며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습니다. 여유 있게 놀며 공부하는 일반학원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p> |
| 수업 | <p>레벨은 1부터 8이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아집니다. 기초레벨에서는 스피킹과 문법을 공부한다고 알고 있으며 본인이 참여한 레벨4, 5의 경우에는 아카데미 라이팅을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스피킹을 배우지는 않지만 그룹과제 및 수업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면 영어로 말을 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선생님들과 가까이하며 스피킹에 대한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매 세션마다 시험을 통해 수준을 나누게 되며 한 반에는 20명 내외입니다. 강사는 캐나디언 및 영어수준이 높은 이민자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는 담당 선생님의 따라 양이 달라지지만 절대로 적은 편이 아니며 과제를 하는 것이 수업준비입니다.</p> |

| | |
|------------|--|
|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학교에는 많은 프로그램과 동아리가 있으므로 개인이 찾아서 참여해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이라 하여 따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학교생활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담당부서도 존재합니다.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제가 파견되어 있던 9월부터 12월까지의 점차 비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날씨는 쾌적한 편이며 겨울에도 눈이 올 정도로 춥지는 않으나 두터운 외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 안전 | <p>밴쿠버의 경우 이민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다운타운을 거닐게 되면 오히려 서양인을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에 인종적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거리의 홈리스들 또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편입니다. 거리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흔하게 맡을 수 있지만 본인이 마리화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마리화나에 노출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p> |
| 숙소 | <p>학교기숙사(X) 홈스테이(O) 외부 숙소(O) 기타(O)</p> <p>랑가라컬리지는 기숙사가 따로 없으며 교내에서 홈스테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외국인 학생들을 적절한 홈스테이 패밀리들과 매치해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상 홈스테이 최소 생활 기간인 2개월을 채운 후에는 본인의사에 따라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하우스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홈스테이 최소기간이 끝난 후 뜻이 맞는 친구와 다운타운 콘도에서 룸쉐어를 하며 지낸 케이스입니다. 물론 개인 하우스징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재미도 있지만 홈스테이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p> <p>홈스테이의 경우 800CAD였으며 다운타운 콘도의 경우 두 명이 공유하는 방(마스터룸)이 1050CAD였습니다. 콘도 하우스웨어 및 룸쉐어의 경우 종류와 매물에 따라 가격대가 매우 다양합니다.</p> |

| | |
|----|--|
| 식사 | <p>학교 Meal Plan (X)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p> <p>교내에서 밀 플랜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학교 내 사설식당에서 개별적으로 사 먹을 수 있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p> <p>홈스테이의 경우 3식을 제공하며, 아침은 대부분 시리얼 및 우유, 점심은 샌드위치, 저녁은 홈스테이 패밀리의 방식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필리핀 홈스테이 패밀리들의 식사 퀄리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p> <p>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톱포함 15CAD를 생각해야 합니다. 식당에 따라 훨씬 저렴하게 식사가 가능한 식당도 있으나 학교주변에는 없습니다.</p> <p>홈스테이에 거주할 경우, 요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점심 샌드위치 요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p>개인적으로 하우징을 하여 거주할 경우 직접 요리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훨씬 합리적입니다.</p> |
| 교통 |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스카이트레인(전철) 혹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으며 스카이트레인과 전철간 환승이 가능합니다.</p> <p>Monthly Pass를 구입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2016년부터는 Monthly Pass의 이용방법이 조금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p> <p>통학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자주 편성되어 있으나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p> <p>광역 밴쿠버 지역은 스카이트레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p> <p>단 밴쿠버 다운타운에서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델타항공 왕복 | 115만원 |
| Fees |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 |
| 보험료 |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 한화손해보험 25만원 |

| | | |
|-----|---|---------------------------|
| 숙소 | 홈스테이 800CAD 다운타운 콘도 1050CAD (525CAD/1인) | 총 약300만원(3650CAD - 4개월) |
| 식비 | 외식경우 1식 약 15CAD 이상 예상 |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 |
| 교통비 | Monthly Pass for 1Zone : 91CAD | 총 약30만원(364CAD - 4개월) + a |
| 책값 | 따로 들지 않음, 프린트물 이용 | |
| 기타1 | | |
| 기타2 | | |
| 기타3 | | |
| 합계 | | 470만원 + 외식비 + 기타 교통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설 생각으로, 여유 있게 공부하며 지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것 또한 다른 방식의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수업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친구들을 사귀기를 바랍니다.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감 어린 호기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학교의 커리큘럼은 예상보다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한번 수업을 놓치게 되면 따라가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잘만 따라 간다면 상당한 영어능력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시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어 스피킹에 있어서는 많은
 실력향상이 있지는 않으나 영어 스피킹에 조금 더 친숙해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Meet-up 사이트를 통하여 영어대화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며 외국인친구들을 많이
 만나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의 영어대화 모임에 참여하며
 영어사용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첫 세션 클래스메이트들과 첫 술자리



첫 세션 종료날



i-Café 참여, 외국인학생 모임

둘째 세션 Marllene 선생님과 수업종료 날



Secret Santa 게임



첫째 둘째 세션 친구들과 Farewell 파티